

타인의 행복 예측에서 나타나는 오류 : 서울과 춘천의 삶의 만족도 비교*

성민선 서은국⁺
연세대학교

전우영
한림대학교

초점주의(focalism)란 미래의 행복 예측시 초점이 되는 요소나 사건에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으로서, 과장된 정서 예측 오류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어 왔다. 그렇다면 초점주의는 개인의 미래 사건 경험에 대한 예측 뿐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예측할 때에도 나타나는가(Shkade & Kahneman, 1998)? 본 연구는 타인의 행복 예측시 나타나는 초점주의가 한국문화 내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고자, 총 1,429 명의 서울과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춘천시민은 서울시민의 쇼핑/문화생활, 직업 영역에 대한 삶의 만족을 실제보다 높다고 예상한 반면, 서울시민은 삶의여유 영역에 대한 춘천시민의 삶의 만족을 실제보다 높게 예상하였다.

주요어 : 행복 예측, 초점주의, 삶의 만족도, 서울, 춘천

‘어떤 전공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이와 같은 선택의 문제는 일상생활의 중심에 있다. 결정이 지나는 중요도와 무관하게, 거의 모든 의사결정의 동기는 행복의 추구이다. 우리의 많은 결정은 ‘무엇이 나에게 가장 큰 만족(행복)을 줄 것인가?’에 대한 최상의 답을 얻을 때 최선이 된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에 따르는 경험을 예측하고자 한다. 예컨대 A사보다 B사에 입사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올 것인가, 지방 도시로 이주하는 것이 대도시에 사는 것보다 자녀들의 정서발달에 더 좋을 까 등의 질문은 선택에 앞서 던져지곤 한다. 결국 기대되는 만족을 예측하는 과정은 중요한 삶의 결정의 토대가

되므로 삶의 수많은 결정들은 필연적으로 정서 경험에 대한 예측(affective forecasting)을 수반하게 된다(Wilson & Gilbert, 2003).

그러나 사람들이 언제나 최대 만족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Hsee & Hastie, 2006 참고). 선택에 대한 후회, 시행착오는 빈번히 경험되며 실제로 이혼, 직업에 대한 회의, 그리고 소비자 불만족을 다룬 일련의 보고들은 정서 예측에서 나타나는 오류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Loewenstein & Schkade, 1999). 이처럼 매우 보편적으로 경험되는 정서 예측의 오류는 최근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Buehler & McFarland, 2001; Hsee & Hastie, 2006; Wilson, Wheatley, Meyers, Gilbert, & Axson, 2000; Wilson & Gilbert, 2003).

*본 연구는 강원도 개발공사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신저자 : 서은국,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전화 : (02) 2123-2446,

E-mail : esuh@yonsei.ac.kr

이들 연구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미래에 경험할 정서반응의 강도 또는 지속력을 잘못 예측하는 경우가 많다(Gilbert, Driver-Linn, & Wilson, 2002; Wilson & Gilbert, 2003).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경험할 정서의 강도나 그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지속기간을 과대 예측하는 오류를 범한다(impact bias : Wilson & Gilbert, 2005). 한 예로, 종신 재직권 심사에서 떨어진 교수들은 당시의 좌절감이 5년 후에도 자신의 행복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실제 5년 후 그들의 행복 수준은 종신재직권을 받았던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Gilbert, Pinel, Wilson, Blumberg, & Wheatley, 1998).

부정확한 정서 예측의 결과는 소비 행동에서 또한 나타난다. 배고픈 상태에서 소핑하는 사람들은 평소 필요로 하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식료품을 구매하게 된다(예, Gilbert, Gill, & Wilson, 2002). 이는 당시 느끼는 배고픔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아 미래의 식욕을 과대평가한 데 기인한다. 자동차 구매시 특정한 차를 살 경우 누릴 만족감을 과대예측하게 되면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결국 다른 물건을 더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을 희생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Wilson & Gilbert, 2005). 이와 같이, 잘못된 정서 예측은 광범위한 일상의 영역에서 관찰된다.

부정확한 정서 예측이 반복될 때, 개인이 사후에 경험하게 되는 정서경험의 질 뿐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질 또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초점주의(focalism)는 정서 경험의 강도와 지속도를 잘못 예측하는 오류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Wilson et al., 2000). 초점주의란 어떤 경험을 예측하는 단계에서 중심이 되는 사건이나 요소에 과도하게 주의를 집중하는 경향을 말한다. 미래의 정서 경험 예측시, 초점이 되는 사건(focal event)과 같이 한 가지 요소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주변적 사건들의 영향을 간과하게 된다. 그러나 초점이 되었던 사건이 실제로 발생할 때는 보통 그 밖의 일상이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심적 사건이 아닌(nonfocal event) 일들에도 어느 정도 주의를 두게 마련이다. 따라서, 예측 당시 초점이 되었던 사건에 대한 정서 반응은 일상 속으로 편입되고, 예상했던 정서적 경험은 더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Gilbert, Pinel, Wilson, Blumberg, & Wheatley, 2002 참고).

초점주의 오류는 미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정서 반응을 예측하는 경우 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 경험을 예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한 예로, Schkade와 Kahneman(1998)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판단 역시 초점주의에 취약하다는 점을 밝혔다. 연중 내내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캘리포니아 지역 사람들은 중서부 지역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까? 미 서부 캘리포니아와 중서부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들의 연구 결과 실제 삶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기후 조건의 차이를 접화시킨 후 상대 지역의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예측하게 했을 때, 기후를 비롯한 11개 삶의 영역 중 과반 수 이상에 대해 중서부 집단은 캘리포니아인의 삶의 만족도를 실제보다 더 높게 예상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기후 특성이 초점주의를 유발, 해당 지역 사람들의 일상에서 기후가 미치는 실제 영향보다 과대평가하게 만든 데 기인한다.

초점주의 오류가 다양한 맥락에서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서양문화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문화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교문화 연구들은 동아시아인들이 서구인들보다 더 변증법적이며 전체적 사고(holistic thinking) 경향을 지니고 있음을 일관되게 지지한다(Choi & Nisbett, 2000; Nisbett, Peng, Choi, & Norenzayan, 2001). 전체적 사고의 한 가지 특성은 맥락 또는 배경에 대한 민감성이므로, 정서 예측 과정에서 초점주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정서 경험 예측시 초점이 되는 사건 이외의 요소들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Lam, Buehler, McFarland, Ross, 그리고 Cheung(2005)은 아시아인집단이 유럽계백인집단보다 초점주의 오류를 덜 범하는 결과로써 경험적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초점주의 오류의 보편성을 부정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한 긍정적 미래 사건에 대한 개인의 예측과 실제 경험 간의 차이만을 비교하였고, 지금까지 미래 경험에 대한 개인의 예측 이외의 맥락에서 일관된 문화차를 보고하는 연구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초점주의 오류의 보편성 검증을 위해 타인의 행복을 예측하는 상황을 동양문화

권에서 또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Jones와 Nisbett(1972)에 따르면, 관찰자는 행위자(경험자)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때문에 자기에 대한 이해보다 타인에 대해 이해하려 할 때 초점주의 오류에 더욱 취약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타인이 어떤 정서 경험을 하고 있는가를 예측할 경우 관찰자의 시선으로 상대의 주관적 경험을 평가하게 되므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정보나 상황에 의존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주관적 안녕감의 문화차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외적으로 관찰되는 단서가 개인의 내적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서양 문화권에서보다 크다. Suh, Diener, Oishi와 Triandis(1998)에 따르면, 집합주의적 성향이 강한 동양에서는 규범(사회적 승인)이 주관적 정서 경험보다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더 잘 예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Suh(in press)는 자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동양에서는 서양에 비해 타인의 눈에 비춰지는 사회적 자기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주관적 자기보다 중시됨을 밝혔다.

종합하면, 동양적 자기는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데 익숙한 만큼, 개인의 내적 경험을 유추하는 경우에도 역시 외적 단서에 과도한 주의를 투자하는 습성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한국문화에서 이처럼 만성적으로 제 삼자의 눈, 외적 단서에 주의를 두는 습성이 강화되어 왔다면 오히려 타인의 행복 예측의 상황에서는 초점주의 오류에 더욱 취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양문화에서도 타인의 행복을 예측할 때 초점주의의 오류가 나타나는지 보고자 한다. 앞서 Schkade와 Kahneman(1998)이 지역 간 삶의 만족도 예측의 맥락에서 초점주의 오류를 보고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 문화 내 두 지역 간 행복의 예측에서 나타나는 초점주의 현상을 관찰하고자 대표도시 서울과 전원적 중소도시 춘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본 연구는 서울과 춘천시민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타인의 삶의 만족 판단에 작용하는 초점주

의 현상과 그에 따른 정서 예측의 오류를 관찰하고자 했다. 각 지역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암묵적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역 특성은 주의의 편중을 유발하게 되고(초점주의) 실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방해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지역 간 삶의 만족도 예측시 나타나는 초점주의 오류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Schkade와 Kahneman(1998)의 경우와 같이 두 지역의 특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서울과 춘천은 다소 근접한 도시지역이면서도 한국 문화 내에서 각기 다른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 쇼핑 및 문화생활과 고용 기회가 다양하게 주어진다. 이러한 서울의 특징은 타 지역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이점으로 지각될 것이다. 그러나 서울 사람들의 일상에서 전반적인 삶의 만족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은 아닐 수 있다. 반면, 춘천의 경우 서울과 달리 자연친화적인 환경 특성을 잘 살린 중소도시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직관적인 비교 상황에 놓일 때, 춘천에 대해서는 서울에서보다 여유로운 일상을 떠올리기 쉬운 한 편,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생활 조건이 두드러지게 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표면적 도시특성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차이는 지역 간 삶의 만족도를 비교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지각된다. 따라서 해당 영역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시민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과대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조건을 제공한다고 여겨지는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서는 상대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실제보다 낮게 예상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추론된다.

본 연구의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삶의 만족도에서 서울시민과 춘천시민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상대 지역의 전체 삶의 만족도 예측시 서울시민은 춘천시민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실제보다 낮게 예상하고, 춘천시민은 서울시민의 만족도를 실제보다 높게 예상할 것이다. 이는 서울의 대표도시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 특성에 대한 인식이 발휘하는 후광효과가 춘천보다 강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지역을 비교하는 상황에 놓일 때, 서울시 지

년 특징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지각됨으로써 실제보다 그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판단의 오류(초점주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셋째, 타지역의 영역별 만족도 예측시에는, 상대 지역의 특성으로 두드러지게 지각되는 영역의 만족도가 실제보다 과대평가 되는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즉 서울시민은 춘천시민의 자연환경, 삶의여유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실제보다 높게 예상하는 반면, 춘천시민은 서울시민의 쇼핑/문화생활, 직업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실제보다 높게 예상할 가능성이 크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과 춘천 지역 주민 총 1,429명이 참가하였다 (서울 716명, 춘천 713명). 참가자 선정은 무작위로 이루어졌으며 성비는 서울이 남 370명(51.7%), 여 346명, 춘천이 남 370명(51.9%) 여 343명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모든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주목할 만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주요 분석시 고려하지 않았다. 평균 연령은 서울과 춘천 모두 30대 중반이었다. 연령별 구성은 서울의 경우, 20대 30%, 30대 26.1%, 40대 23.3%, 50대 20.5%의 분포를 이루었고, 춘천의 경우는 20대 35.2%, 30대 22.2%, 40대 21.9%, 50대 20.8%의 분포를 이루었다.

절차 및 설문내용

설문은 전문조사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본수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오프라인(춘천 참가자의 21.2%) 설문 외에 온라인 설문을 활용하였다. 설문에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 및 삶의 만족도 관련 문항들과 상대 주민에 대한 정서 예측 관련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자신의 전체 삶의 만족도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관한 질문과 동일한 문항에 대해 지문을 바꾸어 상대 지역 주민의 전체 삶의 만족도 및 영역별 삶의 만족도를 예상하도록 하였다.

영역별 삶의 만족도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알아보기와 자연환경, 삶의여유, 쇼핑 및 문화생활, 직업의 네 가지 세부 영역을 선정하였다. 선행연구(Schkade & Kahneman, 1998)를 바탕으로

객관적 생활여건과의 연관성이 비교적 높은 영역들을 선정, 두 지역의 특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네 가지로 재분류하였다.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 매우 만족한다 의 7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타 지역의 삶의 만족도 예측

동일한 질문에 대해 지역별로 지문만 다르게 제시하였다. 먼저, 상대 도시 거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서 예측을 위해 “다음에 제시되는 문항들은 춘천 대상자가 춘천일 경우는 서울 사람들에게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라는 지시문과 함께 상대 지역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측을 실시했다. 네 개 영역별 삶의 만족도 및 전체 삶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을 서로 상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에서 서울 거주민에게 제시된 지시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춘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당신이 춘천에 거주하는 동일한 연령대의 비슷한 취미와 취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그리고 제시된 4가지 삶의 영역에 대해 그 사람이 평소 느끼고 있으리라 예상되는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전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도 동일한 형식으로 지역명만 서로 바꾸어 제시하였다. 역시 7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결 과

실제 삶의 만족도에서 지역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대해 집단 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서울시민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M=4.31$, $SD=1.21$)는 춘천시민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M=4.49$, $SD=1.28$)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t(1427)=-2.805$, $p<.005$. 많은 일반인들의 예상과는 달리, 서울시민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해 춘천시민들보다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각 영역별 삶의 만족의 중요도를 연령별로 분석하였다(표 1 참고). 각 연령 집단별로,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선행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삶의여유 영역의 만족도는 전 연령대에

표 1. 영역별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정도 : 연령대별 비교

		B	SE B	β
20대	삶의여유	.177	.042	.207**
	자연환경	.134	.035	.179**
	쇼핑/문화생활	.207	.040	.266**
	직업	.056	.043	.068
30대	삶의여유	.264	.055	.301**
	자연환경	.055	.044	.072
	쇼핑/문화생활	.025	.052	.029
	직업	.139	.059	.151*
40대	삶의여유	.217	.062	.214**
	자연환경	.161	.045	.188**
	쇼핑/문화생활	-.001	.059	-.001
	직업	.259	.061	.272**
50대	삶의여유	.357	.056	.367**
	자연환경	.107	.050	.113*
	쇼핑/문화생활	-.116	.065	-.108
	직업	.237	.066	.228**

주. 종속변인 : 자신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20대 : $R^2=.241$, 30대 : $R^2=.187$, 40대 : $R^2=.257$, 50대 : $R^2=.259$, ** $p<.001$, * $p<.05$

걸쳐 .001 수준에서 전반적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20대 : $\beta=.207$, 30대 : $\beta=.301$, 40대 : $\beta=.214$, 50대 : $\beta=.367$). 그 밖의 영역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에서는 자연환경($\beta=.179$, $p<.001$)과 쇼핑/문화생활($\beta=.266$, $p<.001$)영역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였다.

30대에서는 직업영역($\beta=.151$, $p<.05$)의 만족도만이 유의미했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서는 공통적으로 자연환경과 직업영역의 만족도가 전반적 삶의 만족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40대의 경우 자연환경 영역은, $\beta=.188$, $p<.001$, 직업 영역은, $\beta=.272$, $p<.001$,의 예측력을 보였고, 50대에서는 자연환경 영역이, $\beta=.113$, $p<.05$, 직업 영역이, $\beta=.228$, $p<.001$,의 예측력을 보였다.

삶의 만족도 예측과 오차

본 연구의 주안점인 초점주의 오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관찰될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삶의 만족도와 타인에 의해 예측된 만족도 간에 나타나는 실제값과 예상값의 차이에 있다. 둘째는 예측의 과정에서, 실제 경험되는 만족도 보고시에는 중요시 되지 않았던 요소에 과도한 주의를 투자하게 되는 데 있다.

먼저, 첫 번째 주안점인 실제 경험과 타인에 의한 예측 간의 오류 여부를 알아보았다. 지역 별로 삶의 만족도에 대해 보고대상(자기자신 vs. 타인의예측)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ANOVA를 실시하였다(표 2 참고). 예상대로 서울시민의 춘천에 대한 예측($M=4.33$)은 실제 춘천시민의 삶의 만족도($M=4.49$)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F(1, 1427)=7.148$, $p<.01$. 춘천시민의 서울에 대한 예측($M=4.39$)은 실제 서울시민의 삶의 만족도($M=4.31$)와 비슷했다, $F(1, 1427)=1.433$, ns . 이는 서울시민들은 춘천의 삶의 만족도를 두드러지게 과소평가한 반면, 춘천시민

표 2. 지역별 실제 삶의 만족도와 상대 지역에 의해 예측된 만족도 간의 차이

지역		자기보고 M(SD)	타지역의예측 M(SD)	예측오차 (예측-실제)	F
서울	전반적삶의만족도	4.31 (1.21)	4.39 (1.52)	.09	1.433
	삶의여유	3.88 (1.32)	3.95 (1.58)	.06	.814
	자연환경	3.83 (1.40)	3.42 (1.72)	-.41	24.038***
	쇼핑/문화생활	4.72 (1.30)	5.31 (1.44)	.60	67.105***
	직업	4.04 (1.27)	4.54 (1.47)	.50	47.235***
춘천	전반적삶의만족도	4.49 (1.28)	4.33 (1.02)	-.16	7.148**
	삶의여유	4.28 (1.36)	4.72 (1.12)	.43	43.953***
	자연환경	5.17 (1.36)	5.28 (1.16)	.11	2.428
	쇼핑/문화생활	3.83 (1.33)	3.86 (1.05)	.03	.224
	직업	3.60 (1.40)	3.75 (1.02)	.14	5.283*

*** $p<.001$, ** $p<.01$, * $p<.05$

들은 서울의 삶의 만족도를 실제와 비슷하게 예상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영역별 삶의 만족도 평가에서 나타나는 실제 만족도와 예측된 만족도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서울에 대한 예측의 경우, 예상대로 춘천시민들은 서울시민의 쇼핑/문화생활 영역의 만족도를 실제($M=4.72$)보다 유의미하게 과대평가($M=5.31$)하였다, $F(1, 1427)=67.105, p<.001$. 직업 영역의 만족도에서 역시 예상한 과대평가 양상이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실제 만족도($M=4.04$)보다 춘천시민의 예상($M=4.54$)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F(1, 1427)=47.235, p<.001$. 반면, 서울의 삶의여유 영역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서울시민의 실제 만족도($M=3.88$)와 춘천시민이 예측한 만족도($M=3.95$)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연 환경 영역의 만족에 대해서는 반대의 오차가 나타났다. 춘천시민들의 예상은 ($M=3.42$) 서울시민의 실제 만족도($M=3.83$)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F(1, 1427)=24.038, p<.001$. 종합하면, 춘천시민은 쇼핑/문화생활과 직업 영역에서 실제 서울시민이 보고한 것보다 더 큰 만족을 경험할 것이라 예상했다. 반면 자연환경 영역에서는 실제 서울시민이 경험하는 것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만족을 예상함으로써, 서울에 대한 암묵적인 고정관념이 예측에 반영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춘천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예측의 경우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표 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서울시민은 삶의여유 영역에서 춘천시민의 만족을 과대평가 하였다. 춘천시민들의 실제 만족도($M=4.28$)보다 서울시민이 예상한 만족도($M=4.72$)는 유의미하게 높았다, $F(1, 1427)=7.148, p<.01$. 자연환경 영역에서는 실제 춘천시민이 보고한 만족도($M=5.17$)와 서울시민이 예상한 만족도($M=5.28$)가 비슷했다, $F(1, 1427)=2.428, p=.119$. 쇼핑/문화생활 영역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춘천의 실제 만족도($M=3.83$)와 서울에서 예상한 만족도($M=3.86$)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1427)=.224, p=.636$. 직업 영역에 대해서는, 춘천시민의 실제 만족도($M=3.60$)보다 서울시민의 예상($M=3.75$)이 높았다, $F(1, 1427)=5.283, p<.05$. 정리하면, 예상대로 서울시민은 삶의여유 측면에서 춘천시민이 실제 경험하는 수준보다 더 큰 만족을 경험하리라고 생각했다. 즉 해당 삶의 영역에서 춘천이 서

울에 비해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암묵적 인식이 존재하며, 상대지역의 삶의 만족도 예측시 초점주의를 유발한 것으로 추론된다. 자연환경 영역에서는 오히려 춘천의 실제 만족도와 비슷한 수준의 높은 만족도를 예상함으로써, 춘천의 자연환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영역별 삶의 만족의 중요도와 예측 오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점주의는 실제 행복 수준과 예상값 간의 불일치를 유발시킨다. 그러나 초점주의가 유발시킬 수 있는 또 한 가지 오류는 전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세부 영역에 대한 만족의 중요도를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일례로,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은 영역에 과도하게 주의를 기울이게 될 수 있다(Schkade & Kahneman, 1998). 이러한 맥락에서, 삶의 세부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실제로 관련된 정도를 분석해 보고자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실제 경험시 각 영역별 삶의 만족도가 전체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정도를 알기 위해 전체 집단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 변인으로,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분석했다. 큰 표본집단으로 인해 쇼핑/문화생활($\beta=.06, p<.05$) 이외의 영역은 모두 .001수준에서 강한 예측력을 나타냈다. 지역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고자 각 지역 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고).

앞서 표 1에 제시한 연령별 분석 결과와 일관되게, 지역 간 분석에서 역시 쇼핑/문화생활 영역의 만족도는 전체표본의 전체 삶의 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예측력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삶의여유와 직업 영역의 만족도는 일관되게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였다. 삶의여유 영역은 서울($\beta=.344, p<.001$)과 춘천($\beta=.214, p<.001$) 각각에서 전체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서울($\beta=.191, p<.001$), 춘천($\beta=.178, p<.001$)에서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였다.

한편, 자연 환경 영역에 대한 만족은 춘천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예측했다, $\beta=.156, p<.001$. 정리하면, 두 지역 주민 모두에게 삶의 여유와 직업의 만족도는 실제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춘천의 경우, 자연환경에 대한 만

표 3. 영역별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정도 : 실제 경험 보고

		B	SE B	β
서울	삶의여유	.314	.039	.344***
	자연환경	.021	.032	.024
	쇼핑/문화생활	.064	.064	.069
	직업	.182	.041	.182***
춘천	삶의여유	.202	.036	.214***
	자연환경	.148	.033	.156***
	쇼핑/문화생활	.049	.039	.050
	직업	.164	.038	.178***

주. 종속변인 : 자신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서울 : $R^2=.279$, 춘천 : $R^2=.169$, *** $p<.001$

표 4. 영역별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정도 : 상대 지역에 대한 예상

		B	SE B	β
춘천에 대한 예상 ¹	삶의여유	.278	.037	.306***
	자연환경	.144	.033	.163***
	쇼핑/문화생활	.102	.036	.105**
	직업	.233	.037	.232***
서울에 대한 예상 ²	삶의여유	.347	.036	.362***
	자연환경	.129	.031	.146***
	쇼핑/문화생활	.174	.038	.166***
	직업	.221	.040	.214***

주. 종속 변인 : 타인(상대지역 주민)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 예측, $R^2=.366^1$, $R^2=.480^2$, *** $p<.001$, ** $p<.006$

족도 또한 전체 삶의 만족 평가에 반영되었다. 반면, 쇼핑/문화생활 영역의 만족도는 지역을 막론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 지역의 삶의 만족도 예측시에는 자신의 삶의 만족도 평가에서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표 4의 내용에 따르면, 상대 지역의 전반적 삶의 만족에 대한 예상 시에는 각 영역 만족도에 대한 예상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타인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에는 각 영역별 만족도가 고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기의 실제 경험과 달리, 타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을 예측할 때는 쇼핑/문화생활 영역의 만족도가 유의미한 예측력을 보였다. 즉 실제 경험에서 중시 되지 않았던 요소가 예측시에는 과도한 중요도

를 지닌 것이다.

논 의

본 연구는 타인의 행복 예측시 관찰된 초점주의 오류가 한국 문화에서도 나타나는가 보는데 주목적이 있었다. 동양 문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전체적 사고(holistic thinking) 경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타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 예측에 있어서 초점주의 오류가 나타났음을 밝혔다. 예상과 일관되게, 서울시민은 춘천시민의 삶의여유 영역에 대한 삶의 만족을 과대평가하였다. 반면, 춘천시민은 서울시민의 쇼핑/문화생활, 직업 영역의 삶의 만족을 과대평가하였다. 한 편, 서로 타 지역의 전반적 삶의 만족 예측시, 사람들은 두 지역 간의 눈에 띄는 차이를 지닌 생활 여건(쇼핑/문화생활)에 대한 만족에 비중을 두고 있음이 나타났다. 쇼핑/문화생활 영역에 대한 만족이 타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에 미치는 중요도를 과대평가하였으나, 이 영역에 대한 만족은 실제 경험되는 전반적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실제 삶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결과는 특정 삶의 영역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각되는 지역적 특성이 초점주의를 유발한 데 기인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기존의 입장 또는 고정관념과 일관된 방향으로 주어진 정보들을 선별 수집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Greenwald, 1980; Kulik, Sledge, & Mahler, 1986 참고). 타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평가할 때 역시 기존의 인식과 일관된 방향으로 주의(attention)를 투자하게 되고, 고정관념에 근거한 예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 경우, 서울은 다른 지방 도시들에 비해 쇼핑/문화생활의 기회와 고용 기회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곳인 반면, 춘천은 서울에 비해 보통 더 여유로운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라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이같은 암묵적 인식은 관찰자로서 상대 지역 사람들의 내적 경험을 평가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특성이 실제 삶의 만족 경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라면(예, 쇼핑/문화생활 조건), 관찰자는 판단 과정에서 주의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이 현상은 관찰자와 경험자가 처하는 입장의 질적

인 차이에도 기인한다. 기본적으로 관찰자는 행위자(경험자)가 직면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Jones & Nisbett, 1972). 타인의 행복을 예측하려 할 때 관찰자(예측자)가 수집 가능한 정보는 주로 가시적인 요소들에 국한되며, 그 정보가 상대방의 내적 경험을 예측하는 준거로 적용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판단시 초점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 (Choi, Kim, Choi, & Yi, 2006 재인용).

각 영역별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위의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타 지역 주민의 삶의 만족도 예측시에는 두 집단 모두가 쇼핑/문화생활 영역을 비롯한 네 영역이 모두 상대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자기의 전반적 만족도 평가와 타인의 만족도 평가 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유사한 상황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 대한 예측에 적용하기보다 객관화된 준거를 상대방의 내적 상태 예측에 사용하려 하게 된 데 기인한다. 그 결과 경험자로서는 실상 중시하지 않았던 요소들을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중시 여가게 됨으로써 실제 경험자의 보고와 격차가 큰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타인의 행복 예측시 관찰된 초점주의는 삶의 질과 행복의 관계 연구에 있어서 주관적 지표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기존의 주관적 안녕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 등과 같은 다소 객관화된 지표들이 행복을 예측하는 정도가 매우 미미함을 밝혔다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최근 Kahneman, Krueger, Schkade, Schwartz, 그리고 Stone(2004)은 일상 재구성법(Day Reconstruction Method)을 사용하여 삶의 만족 판단에 작용하는 초점주의 오류를 지지하는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객관적 삶의 조건(예, 수입)은 삶의 만족도 판단에만 다소 영향을 미쳤을 뿐, 일상에서의 긍정적 정서 경험과는 무관했다. 반면, 개인의 기질과 성격적 요인들은 주관적 경험인 행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삶의 만족 수준을 평가할 때 떠올리기 쉬운 객관적 삶의 조건들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과는 무관한 예측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가적으로 밝혀진 흥미로운 결과는, 서울과 춘천시민의 실제 만족도의 차이에 있었다. 화려하고 현대적인 대

도시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서울시민은 춘천 시민보다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만족도가 낮았다. 오히려, 서울과 달리 전원적이고 자연친화적인 특성이 강한 춘천 시민의 삶의 만족이 높았고, 이 결과는 각 삶의 영역별 만족도가 전반적 삶의 만족에 미치는 중요도에 대한 분석 결과와도 일관된다. 즉 삶의여유에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두 지역 모두에서 실제 전반적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이는 연령대별 분석 결과에서도 관찰된다. 그런데 상대 도시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 예측시, 서울시민만이 춘천시민의 삶의여유 영역에 대한 삶의 만족을 유의미하게 과대예측하였다. 이는 보편적으로 현대 시민들의 실제 삶의 만족에 있어 삶의 여유가 매우 중시되며, 이 영역에 대해 춘천이 서울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일회적 측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두 지역 간 삶의 만족에 대한 상호 예측시 나타난 격차의 원인이 초점주의에 있다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정보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한 지역의 두드러지는 특징을 점화시킨 후 삶의 만족을 평가하게 한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전반적 삶의 만족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다면 초점주의의 인과적 영향을 규명해볼 수 있겠다. 또한 초점주의를 유도하는 개인차적 변인의 영향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성격, 가치관, 각 삶의 영역에 부여하는 중요도 등 다양한 개인차적 요인들은 타인의 행복 예측시 어떠한 측면에 주의를 두느냐를 결정하는 중요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각과 인지는 관찰자의 기대, 목표, 기분, 태도 및 가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Allport, 1955).

본 연구는 처음으로 한국문화 내에서도 타인의 행복 예측시 초점주의 오류가 나타남을 보여준 연구이다. 이는 초점주의 오류가 다소 보편적인 현상임을 지지하는 증거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추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처한 환경의 차이가 초점주의 유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관적인 경험인 행복의 예측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끄는 특징적 차이가 실제 행복의 차이와는 독립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컨대 서울은 화려함과 편리성을 지닌 한국의 대도시로서 동경과 이 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실상 그러한 특성이 개인의

행복 수준에 유의미한 향상을 가져오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타인의 부나 명예, 외모와 같은 특정한 삶의 조건이나 상황의 차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성향은 자칫 실제 행복을 증진시키는 삶의 경험과는 관련이 적은 예측과 추구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Allport, F. H. (1955). *Theories of perception and the concept of structure*. New York: Wiley.
- Buehler, R., & McFarland, C. (2001). Intensity bias in affective forecasting: The role of temporal focu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1480-1493.
- Choi J., Kim, K., Choi, I., & Yi, Y. (2006). Variety-seeking tendency in choice for others: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caus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2, 590-595.
- Choi, I., & Nisbett, R. (2000). Cultural psychology of surprise: Holistic theories and recognition of contradi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890-90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Gilbert, D. T., Driver-Linn, E., & Wilson, T. D. (2002). The trouble with Vronsky: Impact bias in the forecasting of future affective states. In L. F. Barrett & P. Salovey(Eds.), *The wisdom in feeling: Psychological processes in emotional intelligence* (pp.114-143). New York: Guilford.
- Gilbert, D. T., Gill, M., & Wilson, T. D. (2002). The future is now: Temporal correction in affective forecast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88, 430-444.
- Gilbert, D. T., Pinel, E. C., Wilson, T. D., Blumberg, S. J., & Wheatley, T. P. (1998). Immune neglect: A source of durability bias in affective forecas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617-638.
- Gilbert, D., Pinel, E., Wilson, T., Blumberg, S., & Wheatley, T. (2002). Durability bias in affective forecasting. In T. Gilovich, D. Griffin, & D. Kahneman(Eds.). *Heuristics and Biases: The Psychology of Intuitive Judgment*(pp.292-31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wald, A. G. (1980). The totalitarian ego: Fabrication and revision of personal history. *American Psychologist*, 35, 603-618.
- Hsee, C., & Hastie, R. (2006). Decision and experience: Why don't we choose what makes us happy?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 Jones, E., & Nisbett, R. (1972). The actor and the observer: Divergent perception of the causes of behavior, an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ed. Edward E. Jones et al., New York: General Learning.
- Kahneman, D., Kruger, A., Schkade, D., Schwartz, N., & Stone, A. (2004). A survey method for characterizing daily life experience: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Science*, 306, 1776-1780.
- Kulik, J. A., Sledge, P., & Mahler, H. I. M. (1986). Self confirmatory attribution, egocentrism, and the perpetuation of self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87-594.
- Lam, K-C. H., Buehler, R., McFarland, C., Ross, M., & Cheung, I. (2005). Cultural difference in affective forecasting: The role of focalis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1296-1309.
- Lowenstein, G., & Schkade, D. (1999). Wouldn't it be nice? Predicting future feelings.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pp.85-105). New York: Russell Sage.
- Nisbett, R., Peng, K., Choi, I., & Norenzayan, A. (2001). Culture and systems of thought: Holistic versus analytic cognition. *Psychological Review*, 108, 291-310.

- Schkade, D. & Kahneman, D. (1998). Does living in California make people happy? A focusing illusion of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Science*, 9, 340-346.
- Suh, E., Diener, E., Oishi, S., & Triandis, H. (1998). The Shifting Basis of Life Satisfaction Judgment Across Cultures: Emotions Versus Nor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482-493.
- Suh, E. M. (in press). Downsides of an overly context-sensitive self: Implications from the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 Wilson, T. D., & Gilbert, D. T. (2003). Affective Forecasting.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35, pp.345-411). New York: Academic Press.
- Wilson, T. D., & Gilbert, D. T. (2005). Affective forecasting: Knowing what to wa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 131-134.
- Wilson, T., Wheatley, T., Meyers J., Gilbert, D., & Axson, D. (2000). Focalism: A source of durability bias in affective forecas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 821-836.

Discrepancies Between Predicted and Actual Happiness of Others : Seoul Versus Choonchun

Minsun Sung Eunkook M. Suh
Yonsei University

Wooyoung Chun
Hallym University

Focalism is a tendency to neglect relevant but less salient factors in the prediction of happiness. To explore whether focalism occurs in the context of predicting *other* people's happiness in Korea, the actual and predicted levels of happiness of Seoul and Choonchun residents were analyzed (N=1,429). As expected, predictions of other's happiness were based disproportionately heavily on aspects of life that might be highly salient from the standpoint of a non-resident. For instance, Choonchun residents overestimated the amount of satisfaction residents of Seoul might derive from domains of shopping and job opportunities. Conversely, people living in Seoul overestimated how happy Choonchun residents might feel in their leisurely pace of life style.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focalistic judgmental tendencies emerge among Koreans in happiness predictions, despite holding holistic worldviews that may potentially attenuate such biases (Lam et al., 2005).

Keywords: Affective forecasting; Focalism; Life Satisfaction; Seoul; Choonchun

원고접수 : 2007년 3월 9일
심사통과 : 2007년 4월 17일